

위험 무릅쓰고 日 향하는 제주 어선들

한·일 어업협상 5년째 중단... 갈치어선 고사 위기 일본 EEZ 해역서 불법 갈치잡이 나서다 나포 반복 갈치 경매단가 형성 영향... 법 지킨 어선들은 피해

한·일 어업협상이 5년째 중단되면서 제주 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조업을 나갔다가 일본 당국에 나포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 재발 방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5일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2016년 한·일 어업협상이 중단된 이후 제주 어선이 일본 EEZ에서 갈치를 포획하다 나포된 사례는 2017년 1척, 2018년 3척, 2020년 1척 등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올해 1월에도 서귀포선적 어선이 일본 EEZ에서 불법으로 갈치를 잡던 중

일본 해상 보안청 함정에 나포됐다. 담보금으로 6000여만원을 내고 풀려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은 2016년 7월 한·일 어업협정 결렬에 따라 한·일 간 중첩 수역어선 갈치 조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발생하고 있다. 이전까지 일본 EEZ로 조업을 나갔던 제주 연승어선은 140여 척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일 어업협상 과정에서 140여 척을 70여 척까지 줄일 것을 요구하는 등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와 한일 감정 악화 등으로 협상 테이블

블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문제는 일본 EEZ에서 불법 조업을 통해 잡아들인 갈치가 제주지역 수협 경매로 나오면서 갈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지역 수산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잦은 눈 날림으로 인해 갈치 어장은 국내보다 일본 EEZ 해역에 다량 형성됐다. 하루 갈치 포획량을 비교하더라도 일본 EEZ 해역에서 잡아들인 갈치 양은 국내 어장에서 잡은 갈치 양의 2-3배 이상 달한다. 제주지역 갈치는 수협 경매를 통해 시장에 유통되는데, 불법 조업을 통해 잡아들인 갈치라도 포획 경로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버젓이 경매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어업인은 "일본 EEZ에서 다량으로 잡아온 갈치가 경매에 나오면

서 갈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에 합법적으로 국내 어장에서 갈치잡이가 나서고 있는 어선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일 어업협상이 조속히 진행돼야 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귀포 수협관계자는 "수년째 한·일 어업협상이 결렬되면서 갈치 어업인들이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일부 선장들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일본 EEZ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협에서는 갈치 어선의 선주와 선장 등에게 불법 포획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있다"며 "불법 포획된 갈치는 경매에 나와서도, 판매가 이뤄져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태윤기자

여아 성추행 혐의 50대 항소서 무죄 징역 4년 1심 뒤집고 항소심서 무죄 판결 진술 불일치·블랙박스 영상이 결정적 영향

6세 여아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가 징역 4년이라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A(5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4시 10분쯤 서귀포시 소재 모 아파트 정문에서 혼자 서있던 B(6)양을 껴안아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3일 1심 재판부(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고, 범행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사진에도 A씨가 B양과 몸을 밀착한 뒤 양손을 감싸 안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A씨는 "당시 담배 한 보루와 핸드폰을 든 양손 대신 양팔을 이용해 B양을 비켜 세우고 지나간 것뿐"이라며 "즉 손으로 만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도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B양이 A씨가 당시 착용한 의상에 대해 "모자를 썼고, 상의는 하얀색 긴팔, 바지는 빨간색 긴바지였다"고 했는데, 정작 A씨는 모자를 쓰지 않았고, 상의와 하의도 모두 검정색 계통을 입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블랙박스 영상에 피해자를 안락으로 제압하는 피고인의 행위가 발견되지 않은 점, 낮 시간 공개된 장소에서 추행한다는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 점 등을 덧붙이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 선고에 불복, 15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송은범기자

오토바이 운전자 심정지 사망 경찰, 사고 경위 등 조사 나서

제주시 구좌읍 세송로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운전자 A(70)씨가 심정지로 인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15일 제주동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5시10분쯤 제주시 구좌읍 세송로 인근에서 오토바이와 함께 운전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19 구급대 출동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급대는 A씨를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민성기자



"파리 꼬일라"... 유해생물 방역작업 15일 조천읍사무소 관계자들이 함덕해수욕장 일대 모자란 퇴적 지역을 중심으로 파리 등 유해생물 번식을 막기 위한 방역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버스 바퀴에 다리 깔려 골절

시내버스에서 하차하던 승객 A(69)씨의 오른쪽 다리가 버스 바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소방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3시43분쯤 제주시 이도2동 중앙여자고등학교 버스정류장에 하차하던 A씨가 넘어지면서 오른쪽 다리가 버스 바퀴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민성기자

"박원철·홍명환 의원 즉각 사퇴하라"

제2공항 찬성단체 어제 도의회 앞 기자회견

제주 제2공항 찬성단체들이 "도민갈등을 조장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원철·홍명환 의원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제2공항건설추진위원회(이하 제2공항추진위)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홍명환 제주도의회 의원이 제2공항 여론조사를 앞두고 "도의회는 공정한 조사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심판이다"고 발언했던 부분

에 대해 지금까지 그가 했던 말과 행동들을 보면 얼마나 앞 위가 다른지 바로 드러난다"며 "앞에서는 공정한 심판 역할을 강조했지만, 뒤돌아서면 제2공항 반대에 앞장섰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어느 방송 인터뷰에서 토지거래제한으로 피해 받은 생산을 주민들을 위해 소음피해지역 직접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SNS에선 생산을 특별히 고려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을 바꿨

다. 이 정도면 말 바꾸기 달인 수준이다"고 힐난했다.

이들은 제2공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정당환 활동마저 가로막아 왔다고 주장하며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뜻을 대신 전달하는 대의자 역할을 하라는 것이지, 여론을 호도하고, 공정으로 포장해 뒤로는 온갖 불공정 행위를 남발하라고 권한을 준 것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나고 찬성단체들은 도의회에 들어가려 했으나 의회경호들이 막아서면서 한동안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제주해양경찰서 명예해양환경감시원 모집

제주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단체·해양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신청조건은 해양환경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의 회원, 해양환경 관련 연구 또는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이촌계의 어촌계장으로서 해양환경

관리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다.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을 신청하고 싶은 사람은 제주해양경찰서 홈페이지 방문해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 후 이메일(splendid01@korea.kr) 또는 우편(제주시 임항로 154, 제주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강민성기자

제2공항 투기 의혹에 경찰력 투입

제주경찰청, '부동산 투기 전담수사팀' 출범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과 관련 제주경찰이 '부동산 투기 전담수사팀'을 운영키로 했다.

제주경찰청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 전담수사팀'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권용석 제주경찰청 수사과장(총경)이 수사팀의 팀장을 맡게 되며, 그 밑으로 24명의 수사관이 투입된다. 이들은 제2공항 건설지역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부동산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 전국 각지의 개발예정지역 농지 부정취득 및 토지 불법 형질변경 등 보상 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이 밖에도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불법전매, 차명거래, 미등기전매, 불법중개 등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망이 닿도록 할 계획이다. 송은범기자

SM그룹 에스엠신용정보

생각만해도 머리 아픈 돈, 돈! 최선으로 받아줍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에스엠신용정보**를 선택하십시오!
만족으로 보답해 드립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부동산대금, 투자금, 빌려준돈(판결문, 공증), 약정금, 구상금, 계돈

고객님 언제든지 전화,방문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며 착수금(선불경비)일체 받지 않습니다

에스엠신용정보 제주지사 ☎ 064)756-9041

직원모집 추심관리사, 영업전문직을 모집합니다 064)725-9001

그랜드보청기

2021히트브랜드대상볼륨이특가할인!

건강보험공단 제출 서류 영구 대항 해드립니다.

2021 HITHBA 히트브랜드대상 1위 THE HIT BRAND AWARD 1ST PLACE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삼촌들 흔저 전화 주셔서! 기다려주세요!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8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한라일보 서사리 사거리 동쪽 100m 구)행복빵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표 임정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